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수현, 임동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The Influence of Physical Therapist's Emotional Control Ability on Job Satisfaction

SooHyeon Kim, DongHo Lim*

Department of Naturopathy,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S시 물리치료사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지향적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지향적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물리치료사들의 직무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ability of physical therapists to control emotions on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6 physical therapists at S cit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examining the effect of physical therapists' ability to control emotions on intrinsic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sub-factors of emotional control ability, emotion recognition, and emotion control strateg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trinsic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emotional response, goal-oriented behavior, impulse control, and emotional clarity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intrinsic satisfac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emotion recognition and the emotion control strategy of emotion control 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xternal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emotional response, goal-oriented behavior, impulse control, and emotional clarity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xternal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emotional recognition and emotional control strategy of the physical therapist's emotional control ability,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lay the basis for preparing a plan for improving the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Keywords : Physical Therapist, Emotional Control Ability, Intrinsic Satisfaction, Extern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ongHo Lim(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email: eatiger@hanmail.net

Received May 31, 2021

Revised July 6,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는 최근 경제의 성장과 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반면 더욱 건강한 백세를 기원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의과학과 의료산업의 발달로 생활수준, 의식수준이 높아지며 건강에 대한 공공성과 더불어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1].

특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종사 직업군인 물리치료사는 재활치료 영역에서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회복을 돕고, 정상적으로 환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물리요법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고, 하루에 통증치료 30명, 재활치료의 경우 14~16명으로 담당해야할 환자 수, 근무시간, 업무량 등 복지도 매우 열악하다[3,4]. 물리치료사의 주된 업무는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통증 발생 단계에서부터 치료, 회복단계에 이르기까지 환자 상태에 맞춰 상담이 동반된 치료를 진행한다. 이때,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 시간동안 자세를 유지해야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변칙적인 힘과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용하며, 당일 신체 컨디션과 환자 내원 수,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는 환자들로 인해 정서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5].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고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6]. 특히, 의료서비스에서 고객과 접하는 의료인들은 전문성과 의료기술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분뇨에서 공감까지 다양한 감정조절능력도 필요하다[7,8].

물리치료사의 직무 중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변인은 감정조절능력으로 나타난다. 일정한 시간동안 다수의 환자를 접하며 현대사회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의 높은 질과 환자의 만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사의 감정 조절 능력은 필수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집단에 속해있을 때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9]. 이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조되는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들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자극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게 하는 능력을 뜻한다[10]. 또한 좋지 않은 감정 상태일 때는 그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즐거움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11]. 선행연구

를 보면 감정 조절 능력 정도에 직무만족과 상사와의 관계, 고객만족이 달라지며, 이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나타낸다[12].

이처럼 물리치료사는 환자에 맞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3]. 여기서 말하는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역량을 충분히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1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 요인에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감정과 관련된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또한 조직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일에 보다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되고, 동료나 고객에게 협조적이며 불만을 호소하지 않게 된다[16]. 이처럼 의료인이 가지는 직무만족은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1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 공감능력, 잔류의도 등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 직무만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물리치료사들의 직무만족 증진에 대하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내적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외적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까지 S시의 물리치료사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문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5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에 연구의 자료로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6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감정조절능력 36문항, 직무만족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종교,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강은경[18]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감정조절능력 36문항, 감정반응 6문항, 목표 지향적 행동 5문항, 충동조절 6문항, 감정인식 6문항, 감정조절전략 8문항, 감정의 명확성 5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각 문항을 측정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아이린[19]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내재적 만족 14문항, 외재적 만족 6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각 문항을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결과, 감정조절능력의 전체 신뢰도는 .907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도의 신뢰도 또한 .916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Emotional control ability	Emotional reaction	36	.879	.907
	Goal-oriented behavior		.868	
	Impulse control		.864	
	Emotion recognition		.950	
	Emotion control strategy		.884	
Emotional clarity			.880	
Job satisfaction	Intrinsic Satisfaction	20	.939	.916
	External satisfaction		.892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내재적 만족,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중회귀식은 비표준화계수(B)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text{Intrinsic Satisfaction}) = .431 - .095X_1(\text{emotional reaction}) - .016X_2(\text{Goal-oriented behavior}) + .176X_3(\text{Impulse control}) + .579X_4(\text{Emotion recognition}) + .452X_5(\text{Emotion control strategy}) - .254X_6(\text{Emotional clarity})$$

$$Y(\text{External satisfaction}) = .576 + .078X_1(\text{emotional reaction}) + .266X_2(\text{Goal-oriented behavior}) - .086X_3(\text{Impulse control}) + .575X_4(\text{Emotion recognition}) + .448X_5(\text{Emotion control strategy}) - .185X_6(\text{Emotional clarity})$$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물리치료사 남자 72명(49.3%), 여자 74명(50.7%)으로 성별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79명(5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40대 42명(28.8%), 20대 13명(8.9%), 50대 9명(6.2%), 60대 이상 3명(2.1%)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36명(46.8%) 기혼 73명(67.0%)으로 기혼이 미혼 36명(46.8%)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 38명(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 34명(23.3%), 1년 이상-3년 미만 32명(21.9%), 10년 이상 24명(16.4%), 1년 미만 18명(12.3%) 순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46)	
		Frequency	Ratio(%)
Sex	Male	72	49.3
	Female	74	50.7
Age	20s	13	8.9
	30s	79	54.1
	40s	42	28.8
	50s	9	6.2
	over 60s	3	2.1
Religion	Presense	32	21.9
	Absense	114	78.1
Work experience	~1 year	18	12.3
	1~3 years	32	21.9
	3~5 years	34	23.3
	5~10 years	38	26.0
	Over 10 years	24	16.4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감정조절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감정조절능력 요인 모두 M=3.27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정인식(M=3.67)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반응(M=2.98) 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emotional control ability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al reaction	146	1.67	4.17	2.98	.55
Goal-oriented behavior	146	1.80	4.40	3.28	.60
Impulse control	146	1.17	4.33	3.25	.64
Emotion recognition	146	2.00	5.00	3.67	.68
Emotion control strategy	146	1.00	4.25	3.00	.69
Emotional clarity	146	2.00	4.80	3.45	.54
Total	146	1.77	4.21	3.27	.49

3.2.2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무만족도 요인의 전체는 M=3.17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내재적 만족(M=3.28)이 외재적 만족(M=3.07) 요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on job satisfaction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Intrinsic Satisfaction	146	1.00	4.93	3.28	.67
External satisfaction	146	1.00	4.33	3.07	.72
Total	146	1.00	4.63	3.17	.67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 요인과 직무만족도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의 내재적 만족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27, p<.01$). 또한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의 외재적 만족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641,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사이에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Emotional control ability	Job satisfaction	
			Intrinsic	External
Emotional control ability		1		
Job satisfaction	Intrinsic	.527**	1	
	External	.641**	.888**	1

*p<.05, **p<.01

3.4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와와의 관계

3.4.1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재적 만족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38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8.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0이나 4에 가깝지 않은 1.128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4.521,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인식($\beta=.593$, p<.001), 감정조절전략($\beta=.469$, p<.01)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beta=-.079$, p>.05), 목표지향적행동($\beta=-.015$, p>.05), 충동조절($\beta=.169$, p>.05), 감정의 명확성($\beta=-.208$, p>.05)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이 높을수록 내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bility on intrinsic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Intrinsic Satisfaction	a constant	.431	.344		1.252**	
	Emotional reaction	-.095	.178	-.079	-.534	.203
	Goal-oriented behavior	-.016	.201	-.015	-.081	.134
	Impulse control	.176	.210	.169	.838	.108
	Emotion recognition	.579	.116	.593	5.009***	.316
	Emotion control strategy	.452	.163	.469	2.777**	.155
	Emotional clarity	-.254	.193	-.208	-1.319	.178
R ² =.385, Modified R ² =.359 F=14.521, P=.000, Durbin-Watson=1.128						

*p<.05, **p<.01, ***p<.001

3.4.2 감정조절능력이 직무만족도의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외재적 만족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483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48.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D-W(Durbin Watson) 값이 0이나 4에 가깝지 않은 1.255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21.634,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인식($\beta=.543$, p<.001), 감정조절전략($\beta=.428$, p<.01)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beta=.060$, p>.05), 목표지향적행동($\beta=.222$, p>.05), 충동조절($\beta=-.076$, p>.05), 감정의 명확성($\beta=-.140$, p>.05)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이 높을수록 외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bility on extrinsic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Extrinsic satisfaction	a constant	.576	.342		1.682**	
	Emotional reaction	.078	.177	.060	.441	.203
	Goal-oriented behavior	.266	.200	.222	1.333	.134
	Impulse control	-.086	.209	-.076	-.410	.108
	Emotion recognition	.575	.115	.543	4.999***	.316
	Emotion control strategy	.448	.162	.428	2.763**	.155
	Emotional clarity	-.185	.191	-.140	-.968	.178

R²=.483, Modified R²=.461
F=21.634, P=.000, Durbin-Watson=1.255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내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지향적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만족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38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8.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0이나 4에 가깝지 않은 1.128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4.521,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 요인은 내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이 높을수록 내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이 외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지향적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만족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483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48.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0이나 4에 가깝지 않은 1.255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이고,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21.634,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반응, 목표 지향적 행동, 충동조절, 감정의 명확성 요인은 외재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감정조절전략이 높을수록 외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조절능력은 직무만족도를 돕는다는 선행연구[8],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는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조절전략이 높을수록 내재적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물리치료사의 감정조절능력의 감정인식, 조절전략이 높을수록 외재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의 역할수행을 높이기 위해 감정조절능력과 직무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을 느끼는 감정조절능력이 개인, 의료 서비스, 직장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 및 지역의 제한과 방법의 한계가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간의 연구를 한다면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조절 능력이 일과 삶의 균형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다양성을 지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측면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감정조절 능력의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그동안 물리치료사의 직장 내 직무열의 및 소진 등에 대한 사례 연구는 종종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 개개인의 변인을 파악하여 감정조절 능력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조절 능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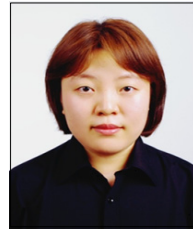
References

- [1] D. W. Baik, Y. H. Yom,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18, No.3, pp.271-280, 2012.
DOI : <https://doi.org/10.1111/jkana.2012.18.3.271>
- [2] M. S. Cho, "A study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Vol.47, No.3, pp.75-94, 2008.
- [3] M. Y. Song, T. S. Lee, "The Trend of Turnover within

- Physical Therapist in Busa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hysical therapy science, Vol.15, No.2, pp.72-77, 2008.
- [4] Y. B. Huh,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pp.1-54, 2002.
- [5] J. K. Choi, “A study of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for physical therapist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Safety Engineering, pp.1-76, 2017.
- [6] M. K. Min,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the job stress : the moderate effects of relations, organization, and inner personal resource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1-75, 2014.
- [7] Y. J. Heo, S. M. Le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depressive symptom i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pplication, Vol.10, No.9, pp.237-247, 2019.
- [8] R. H. Humphrey, J. M. Pollack, T. Hawver, “Leading with emotional labor”,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23, No.2, pp.151-168, 2008.
DOI : <https://doi.org/10.1108/02683940810850790>
- [9] D. M. Tice, E. Bratslavsky, “Giving in to Feel Good : The Place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Context of General Self-Control”, Psychological Inquiry, Vol.11, No.3 pp.149-159, 2000.
DOI :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3_03
- [10] M. C. Hyson, K. Hirsh-Pasek, L. Rescorla, “The classroom practices inventory : An observation instrument based on NAEYC’s guidelines for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for 4- and 5-year-old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5, No.4, pp.475-494, 1990.
DOI : [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15-s](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15-s)
- [11]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Publishing house of New York : Bantam Book, 1995.
- [12] H. E. Kim, “A study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emotional labourer's job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with superior as controlling emotions”,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p.1-193, 2019.
- [13] J. I. Dong, “An analysis of work stress of physical therapist and reaction”,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pp.1-66, 2007.
- [14] M. H. Yeo,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of the administrative staff in general hospital”,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p.1-46, 2002.
- [15] M. H. Lee, “Convergence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Radiograph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8, pp.357-368, 2015.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5.13.8.357>
- [16] W. S. Park,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ory”, Publishing house of BeopMunSa, pp.1-516, 1996.
- [17] H. O. Lee, J. Y. Jeon,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Wonkwang Health J, Vol.15, pp.255-266, 1992.
- [18] E. K. Kang, “The Effect of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ok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Puvlic policy, pp.1-121, 2013.
- [19] I. J. Park, “A validation study of the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al Counseling, pp.1-86, 2005.

김 수 현(SooHyeon Kim)

[정회원]



- 2019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박사과정 중
- 2013년 1월 ~ 현재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회원
- 2020년 5월 ~ 현재 : 연세이너럴의원 도수치료 팀장

<관심분야>

자연 치유

임 동 호(DongHo Lim)

[정회원]



- 1993년 4월 : 인도 부네대학교 대학원 철학 석사
- 1999년 8월 : 인도 부네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교수

<관심분야>

자연 치유